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후행발화의 화행 연구*

김미령**

|| 차례 ||

1. 머리말
2. 선행발화의 화용적 특징
 - 1) 공통 특징
 - 2) 개별 특징
3. 후행발화의 화용적 특징과 화행의 유형 설정
 - 1) 후행발화의 화용적 특징
 - 2) 유형 설정의 기준
 - 3) 후행발화 화행의 하위 유형
4. 맺음말

【국문초록】

대화의 개시로 실현되는 발화에는 화자의 행위나 생각, 혹은 화자가 알고 있거나 지각한 외부세계의 사실에 관하여 전달을 목적으로 실현되는 발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성격의 발화에 대해 반응으로서 실현되는 후행발화들의 특징을 살펴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적용을 통해 후행발화가 가지는 화행을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전달목적 발화가 선행발화로서 가지는 화용적 특징과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가 가지는 화용적 특징을 살펴서 후행화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유형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내용에 관한 화자의 의도에서는 선행발화에 대한 만족 여부와 받아들임의 의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선행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도에서는 친교 의도와 표현의 적극성 유무, 그리고 경우에 따라 특별하게 개입되는 화자중심의 문제, 확정의 태도, 빈정거림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후행발화의 화행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5-A00058)

**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강사.

따라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후행발화의 화행으로는 감사 화행, 동조 화행, 회피1 화행, 확인 화행, 수긍 화행, 의례 화행, 감수 화행, 회피2 화행, 비꼼 화행, 항의 화행, 반대 화행이 설정된다.

주제어 : 만족, 받아들임, 친교, 적극, 화자중심, 확정, 빈정거림, 감사, 동조, 회피1, 확인, 수긍, 의례, 감수, 회피2, 비꼼, 항의, 반대

1. 머리말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는 대화에서 쌍을 이루어 서로 영향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는 선행발화의 성격에 따라서 후행발화가 달리 실현됨을 말하는데¹⁾, 이에 대화의 분석에서 자극과 반응으로서 선행발화와 후행발화를 각각 살피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대화의 개시로 실현되는 선행발화는 그 성격에 따라, 화자의 행위나 생각 혹은 화자가 알거나 지각한 외부세계의 사실에 관하여 전달을 목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발화와, 청자의 행위나 생각에 관하여 화자가 반응 요구를 목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발화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²⁾

그런데 전달목적의 발화는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³⁾ 즉, 요청이나 명령 등 청자에 대한 반응요구가 있는 발화에서의 수용이나

1) 선행화자의 행위는 후행 화자의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사라져 버리는 시간적인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화자의 발화행위를 요구하며 그 화행의 유형을 한정짓기도 한다.(장경희 1998:215)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령(2005, 2006)에서 논의하였는데, 여기서는 김미령(2005)에 근거하여 이의 후행발화를 전개한다.

3) 경우에 따라서는 청자의 반응을 특별히 요구하는 화행이 있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 내일 병원에 가 봐야겠어.”는 화자 자신의 행위에 관한 발화이지만, 상황적으로 관심이나 걱정 등의 청자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거부와 같은 직접적 반응과는 달리, 전달목적의 발화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 혹은 알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자의 심리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의 발화에 대해 청자가 관심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양상이므로⁴⁾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후행발화를 살피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전달목적 발화가 청자의 심리적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는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화상에서 전달을 목적으로 실현되는 발화에 대해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후행발화를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이 연구의 이론적 바탕은 화행이론(speech act theory)으로서, 오스틴(1962)과 써얼(1985)에 의해 이론이 정립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되고 있다. 특히, 화행의 유형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수행동사 중심의 연구가 박영수(1981), 장석진(1993) 등에서 있었고, 간접화행의 관점과 대화 행위적 관점의 연구도 이준희(2005)와 서상규·구현정 공편(2005) 등에서 살펴지고 있다. 그러나 수행동사 중심의 연구는 우리 언어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후의 연구도 화행의 유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개별성이 무시되거나 하위 유형의 분류가 일관되지 않고 명확하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반응의 화행에 대한 개별연구는 다음과 같이 있다.

장경희(1999)에서는 진술⁵⁾을 ‘발화의 명제내용이 나타내는 사태가 사실

4) 대화의 청자는 발화의 청취나 이해행위 이외에 말에 대한 주의집중, 맞장구, 동의, 부정 등을 나타내는 청자반응을 수행함으로써 대화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 되도록 한다.(박용익 1997:58) (장경희 1998:217 재인용)

5) 장경희(1999)에서의 ‘진술’은 여기서의 논의범주에 들어가는 진술 화행과는 다름이

임을 주장하거나 사실 가능한 것임을 주장하는 언어 행위'로 규정하면서, 진술의 사실성을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태에 대한 진실성, 명제내용의 사실성, 그리고 사태의 존재 여부와 대응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이는 진술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일반적인 대화의 성격⁶⁾으로 볼 때 선행발화에 대해 사실성 여부를 평가하는 긍정과 부정의 태도가 일상적 대화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 지며⁷⁾, 오히려 발화의 진위보다 발화에서 전달되는 생각이나 감정의 영향 관계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순자(2001)에서는 진술에 대한 응대방식을 여성화자 중심으로 맞장구식, 내용확장식, 정서적, 이의 제기 진술의 응대로 분류하고 있고, 김순자·장경희(2008)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맞장구의 유형을 인식표시형, 동의형, 정서 표출형, 반복형, 음성 표출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형의 분류에 적용된 기준이 의미와 형식의 면에서 일관되지 않게 적용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은희(2001)에서는 맞장구 어사와 반복표현을 중심으로 협

있음을 밝혀 둔다. 여기서의 진술 화행은 화자의 생각, 즉 화자의 느낌, 추측, 바람 따위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발화에 한정된다.

진술(statement)에 대하여 쉘(1977:34-8)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표상(represent)한다는 데에 요점이 있다며 “진술행위는 참 또는 거짓의 가치를 수반하는데 이의 문제는 주관적인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참/거짓’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많은 ‘단언’ 문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였다.(이성범 옮김 1996: 136-137,170) 여기서 쉘은 진술을 사태의 표상으로 보면서도 주관적인 심적 상태의 표현이 많이 있음을 내용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진술에 관한 정의가 문제된다.

- 6) 구현정(1997:25)에서는 대화를 “일상생활에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대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적인 언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 7) 대화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의 발화에 대해 진실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진위가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상황에서 진위에 대한 평가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히 화자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때 선행화자에 대한 동조나 반박의 의미로 ‘맞다, 틀리다, 틀립없다, 사실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 등의 표현이 쓰이게 된다.

조적인 대화의 맞장구를 살피고 있고, 김형민(2003)에서는 칭찬화행의 수행방법과 응대방법을 외국의 연구와 비교하여 살피고 있는 등,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적 언어행위의 연구들이 몇몇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개시 발화의 화행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의 화행에 대해서는 개별 화행에 대한 연구만 몇몇 있을 뿐, 전반적 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개별 화행의 연구에 있어서도 제각기 용어가 달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화행을 개별 의미에 초점을 두고 분류하자면 뉘앙스 차이를 가지는 낱말의 수만큼이나 화행의 수도 다양해 질 수 있다. 하지만 대화에서 참여자들이 발화의 이해와 반응에 즉각적일 수 있는 것은 화행의 유형이 그처럼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과 각 발화의 화행이 개별 의미보다는 다른 화행과의 변별적 의미에 의해 구분되고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가정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실현되는 후행발화 화행을 전반적으로 살피기 위해 각 화행이 다른 화행과 구분되는 변별적 의미로서의 기준을 설정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화행의 유형을 체계화하고자 한다.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개개의 낱말이 제 홀로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고 오직 전체의 전체 속에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장이론⁹⁾의 바탕을 화행의 분석에 원용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화행을 낱말의 개별로

8) 화행을 유형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 의미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형식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화행의 변별성에 초점을 두고 화행을 전체적으로 유형화해 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 접근하려고 한다. 이에 여기서 설정된 화행의 하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9) 홉볼트의 영향을 받은 1930년대 독일의 언어학자들은 낱말이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공간을 분할한다고 하고 있다. 임지룡(2007:76,80) 참조.

인식하지 않고 전체 속에서 다른 화행과의 구분에서 가지게 되는 의미로 개별화행을 규정하려 한다.

이에 2장에서는 논의의 대상인 전달목적 발화의 후행발화가 실현되는 앞선 조건으로서의 선행발화들이 가지는 화용적 특징을 공통 특징과 개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후행발화가 가지는 화용적 특징을 살펴 본 다음, 이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 변별 기준을 설정하여, 이의 적용을 통해 각각의 개별 화행을 설정하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유형화 하고자 한다.

2. 선행발화의 화용적 특징

대화에서 반응으로 실현되는 후행발화는 그의 자극이 된 선행발화의 성격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된다. 그것은 선행발화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특징들에 의해 후행화자가 파악하고 반응해야 할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후행발화에 영향을 주는 선행발화로서 역할을 하는 전달목적 발화의 특징¹⁰⁾에 대해 공통 특징과 개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0) 김미령(2005)에서는 발화에 개입된 화자의 의도가 청자의 즉각적인 응답을 반응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있는 개시발화들의 화행에 대하여 다루었다. 여기서는 발화에 개입된 화자의 의도를 내용에 관한 의도와 청자와의 관계에 관한 의도로 먼저 나누고, 내용에 관한 의도에서는 발화내용에서의 주체, 대상, 청자와의 관련성으로 발화의 성격을 살펴었고, 관계에 관한 의도에서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의무, 친교, 부담, 평가의 유무에 따라 발화의 성격을 살펴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내용과 관계에서 살펴진 화자의 의도에 따라 약속화행과 알림1화행, 사과화행, 칭찬화행, 인사화행, 비판화행, 반감화행, 진술화행, 알림2화행으로 유형화하였다.

1) 공통 특징

발화를 통해 실현되는 화자의 의도는 항상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에 초점이 놓이기 마련인데, 이는 발화의 목적 대상과 내용에 따라 발화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발화가 선행발화로서 가지는 공통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전달목적의 선행발화는 화자 자신의 행위나 생각에 대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거나 지각한 외부사실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현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 (1) ㄱ. 나 내일 친구 만나러 경주에 가요.
 ㄴ. 어, 늦어서 미안해.
 ㄷ. 영화가 내일 온다 하네요.

(1)은 모두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발화들로, (1ㄱ)은 화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 (1ㄴ)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1ㄷ)은 화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외부세계의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청자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발화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며, 화자 중심적 표현¹¹⁾이 되고 있다.

둘째로, 전달목적의 선행발화에서 그 내용이 청자에게 관여적¹²⁾일 경우에는 발화가 청자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특성이 있다.

11) 이준희(2005:81-82)에서는 화행을 주관적 화행과 객관적 화행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화자 중심과 청자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의 화행 유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약속 행위, 기술 행위, 단언 행위, 진술 행위, 사과 행위 등을 ‘화자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다.

12) 여기서 ‘관여적’이라는 말은 화자의 발화가 청자의 적극적 혹은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범위 안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한다.

- (2) ㄱ. 너 요즘 나한테 심한 것 같아.
 ㄴ. 김 과장님 오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2)에서 보면, (2ㄱ), (2ㄴ)이 모두 누군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지만, 청자에게 관여적인 (2ㄱ)의 발화가 비관여적인 (2ㄴ)의 발화보다 청자에게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럴 경우에 청자의 반응은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셋째, 전달목적의 선행발화는 특별한 상황¹³⁾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청자의 행위나 생각에 대한 요구 없이 청자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즉, 이러한 발화는 청자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어서 반응요구 발화에서처럼 청자의 직접적인 반응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발화를 통하여 청자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면은 있다.¹⁴⁾

- (3) ㄱ. 다음에는 좋은 가방으로 사 줄게.
 ㄴ. 오늘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ㄷ. 넌 불성실한 게 약점이야.

(3)은 청자의 행위나 생각에 대한 요구 없이 직접적으로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발화들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자는 이러한 발화를 통해 자신의 발화가 청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3ㄱ)에서는 청자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기를, (3ㄴ)에서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그리고 (3ㄷ)에서는 청자가 자기반성의 마음을 가지기를

13) 상황이 응급한 경우거나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보호자와 피보호자처럼 보호의 책임이 따를 경우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

14) 내용의 전달에 목적이 있지만 청자에게 만족감이나 불만감을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청자의 교감 반응이 뒤따를 수 있다.

기대하게 된다.

넷째, 전달목적의 선행발화는 화자가 내용을 알려 청자의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주길 기대하는 것이므로 발화 내용에는 청자에 대한 관계유지의 의도가 잠재되어 있다. 즉, 자신의 발화가 청자에게 영향을 주어 관계의 호전이나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 아니면 관계 악화에 대한 방지나, 혹은 예상되는 관계악화가 있더라도 발전적 관계를 위한 관계유지의 의도가 잠재적으로 들어 있다고 하겠는데,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 위의 보기에서 (3ㄱ)은 관계의 호전, (3ㄴ)은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 (3ㄷ)은 발전적 관계 모색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전달목적의 선행발화는 제한적인 요구를 하는 것과는 달리 청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

(4) ㄱ. 다음부터는 약속 꼭 지킬게.

ㄴ₁. 알았어.

ㄴ₂. 제발.

ㄴ₃. 정말이지?

ㄴ₄. 어느 세월에.

ㄴ₅. 됐다 됐어.

ㄴ₆. 도대체 몇 번째야?

:

(4)에서는 (4ㄱ)의 선행발화에 대해 (4ㄴ)처럼 여러 가지의 반응이 가능하다. (4ㄴ₁₋₃)은 발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고, (4ㄴ₄₋₆)은 부정적인 반응인데, 같은 감정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달목적 발화는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후행발화가 실현되기 위한 선행발화의 공통 특징으로는 먼저, 발화들이 화자 자신에 관한 내용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현이 된다는 점과 발화 내용이 청자에게 관여적일 경우에는 청자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특성이 있고, 직접적인 요구는 없지만 발화를 통해 청자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면이 있으며, 발화의 내용에 청자에 대한 관계유지의 의도가 잠재되어 있음과 아울러 제한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유도한다는 여러 특성이 있다.

2) 개별 특징

발화를 통해 화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내용에 관한 의도와 청자와의 관계에 관한 의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나게 되는데, 청자와의 관계에 관한 의도에 따라서 선행발화의 개별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¹⁵⁾

관계에 관한 의도로 발화에 개입되는 화자의 의도에 청자에 대한 친교의 목적이 있는가 하는 것과 청자에 대한 의무나 청자에게 주는 부담, 청자에 대한 평가가 있는가 하는 것은 선행발화의 성격을 다르게 결정한다. 즉, 선행발화에서 친교 목적의 유무 사항은 화자가 지향하는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고, 의무나 부담, 그리고 평가의 유무 사항은 청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다르게 하여¹⁶⁾ 청자가 파악하게 되는 선행발화의 화행도 이에 따라 달리 결정이 난다.

15) 김미령(2008:98)에서 수정 인용.

16) 이러한 사항은 청자의 체면에 관계하게 되는데, ‘체면’에 관하여 송경숙(2003:138-140)에서는 ‘대표적 개인’이라 부르는 사회의 정상적인 한 성인 화자는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공적인 자신의 이미지”라 정의하는 체면을 갖고 있음을 가정했다(브라운과 레빈슨 1987:61)고 소개하면서 일상의 대화적 상호작용에서 화자와 청자의 체면유지는 대화의 목적이라 하고 있다.

- (5) 가. 너 제법 똑똑하네.
 나. 내년에는 꼭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르. 너의 생각은 틀렸어.

(5)는 모두 전달목적의 발화이지만, 관계에 관한 의도에서 살펴보면 각각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친교 목적의 의도는 (5가), (5나), (5다)에만 있고, 화자의 청자에 대한 의무는 (5나)에만 있으며, 청자에게 주는 부담은 (5다)¹⁷⁾과 (5르)에, 또한 청자에 대한 평가는 (5가)과 (5르)에 있다. 이에 각 발화의 성격을 살펴보면, (5가)은 친교 목적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청자에게 주는 부담 없이 청자에 대한 평가가 있는 발화이고, (5나)은 친교 목적의 의도가 있으며 청자에 대한 의무가 있는 발화이며, (5다)은 친교 목적이 있으면서 청자에 대한 평가는 없지만 청자에게 부담¹⁸⁾을 주는 발화이며, (5르)은 청자에 대한 친교적이지 않은 평가가 있으면서 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발화이다.¹⁹⁾

이처럼 청자에 대한 친교의 목적이나 의무나 부담, 평가의 유무 사항은 선행발화의 개별 성격을 결정지어 선행발화에 대한 청자의 화행의 파악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17) 이러한 사과화행에 대해 김인규(2002:27)에서는 청자에게는 체면보호행위이며, 화자에게는 체면위협행위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과 상황에서 사과화행이 이처럼 청자에게 체면보호행위가 되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청자가 화자에게 바람직하게 보이거나 하는 적극적 체면을 위협받지 않으려면 청자에게는 사과를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새로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 친교적인 발화들은 대부분 청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으나, 사과 화행은 청자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다른 친교적 발화와는 구분이 된다.

19) 이들은 각각 칭찬화행, 약속화행, 사과화행, 비판화행의 하위유형에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는 개별화행의 특징을 살피는 범주로만 설명한다.

3. 후행발화의 화용적 특징과 화행의 유형 설정

이 장에서는 먼저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실현되는 후행발화의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들을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화행을 유형화 하고자 한다.

1) 후행발화의 화용적 특징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는 선행발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선행화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새롭게 영향을 줄 만한 발화시점 이전의 특별한 일이나 경험이 관여되어 후행화자의 의도가 발화로 표현이 된다.²⁰⁾ 즉, 후행발화는 대화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 역할이 아니라 반응으로 보여주는 소극적 역할을 하지만²¹⁾ 후행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대화의 분위기가 좌우 되는 면이 있다.

특히, 전달목적 발화의 후행발화에서는 선행화자와의 관계유지의 의도와 체면유지의 의도가 상호 충돌하여 이의 작용으로 발화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 이는 어느 면을 더 중시할 것인가의 화자의 의도에 따라 관계유지 면과 체면유지 면의 적정 높이가 정해져 발화의 성격이 달리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관계의 면을 중시하면 자신의 체면이 다소 위협받을 수 있고, 체면을 중시할 때 관계가 다소 위협받을 수 있는 특성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전달목적 발화의 후행발화에서 이러한 상호 영향적인 내용의 결정에 개입되는 요소가 선행화자와의 관계이다. 이의 관계에 따라서는 비친교적 발

20) 김미령(2008:93-94)에서 참조

21) 이 논문의 논의대상은 대응쌍에 한정되므로, 후행발화가 새로운 자극발화로 되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화에서도 친교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반대로 친교적 발화에서도 비친교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선행화자와의 관계는 상대적인 힘의 크기와 친밀성의 정도, 그리고 격식성의 유무로 살펴볼 수 있는데²²⁾, 일반적으로 선행화자의 힘이 강하거나, 친밀성이 약하거나, 또는 친밀성이 강하더라도 격식성이 필요한 사회적인 관계일 경우에는 선행발화에 대해 수용적인 경향이 있고, 반대로 선행화자의 힘이 약하거나, 친밀성이 강하거나, 격식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주관대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²³⁾ 경우에 따라서는 반수용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이러한 반응의 태도는 대화의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된다.

(6) ㄱ.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ㄴ₁. 그렇지.

ㄴ₂.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

(6)에서는 (6ㄱ)의 선행발화에 대해 (6ㄴ)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6ㄴ₁)은 선행발화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이고, (6ㄴ₂)는 그렇지 않은 태도이다. 여기서 (6ㄴ₂)와 같은 태도는 후행화자가 자신의 생각이 선행화자와 다를 경우에 선행화자와의 힘, 친밀성, 격식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더라도 관계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 경우, 후행화자가 선택하게 되는 표현으로서, 이때의 대화 방향은 다소 비화합적이 된다.

22) 김미령(2003:94-95)에서는 화행 조건의 분석을 위해 참여자에 관한 부분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살피는 세부조건으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23) 선행화자와의 관계가 친밀하면서 격식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후행화자가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전달목적 발화에 대해 이러한 경우는 대개 암묵적인 수용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관계가 친밀하더라도 격식이 필요한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선행화자와의 관계가 대화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전제된 관계와 더불어 새로운 경험으로 인한 추가적 관계에 의해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다음으로,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표현이 잉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응표현은 생략될 수가 있다. 그리하여 반응표현 없이 진행된 내용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반응표현을 생략하더라도 선행화자가 내용을 충분히 예측하리라는 믿음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 (7) ㄱ.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않을게요.
 ㄴ₁. 알았어.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지.
 ㄴ₂.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지.

(7ㄱ)의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7ㄴ₁)과 같이 반응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된 내용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지만, 반응표현을 생략하더라도 충분히 그 내용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7ㄴ₂)와 같이 반응표현 없이 바로 진행된 내용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²⁴⁾ 이런 경우에 선행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후행화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전달목적 발화의 후행발화에는 관습적인 반응표현²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전달목적의 선행발화는 후행화자의 마음을 움직여 공감이나 인정을 받

24) 이런 경우의 반응은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이 아니라 진행된 반응이므로, 여기서는 수용의 의미로서 대화가 다음으로 넘어간 것으로만 처리하고 이를 따로 유형화하지 않는다.

25) 김미령(2003:15)에서는 ‘임자-풀이’짜임새가 아닌, 한 두 어구로 된 짧은 표현으로 대화에서 율이 가지는 완결된 의미를 관습적이면서 함축적으로 나타내어 의미 전달이 완성되도록 하는 반응 발화에 대하여 ‘대응발화’로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는데, 이 글의 관습적 표현 중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고자 하는 기대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 등 자신에 관한 사사로운 내용을 드러내기 때문에 후행발화에는 상황에서 굳어진 관습적 반응의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사로운 내용에 대한 반응은 선행화자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적 상황에서 굳어져 비교적 오해의 위험부담이 낮은 관습적 표현들을 후행화자는 선호하게 된다.

(8) ㄱ. 지난 번엔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ㄴ₁. 별 말씀요.

ㄴ₂. ?그렇지요.

(8)에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8ㄱ)에 대해 (8ㄴ)처럼 반응될 수 있으나 (8ㄴ₁)은 자연스러운데 반해 (8ㄴ₂)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ㄴ₁)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쓰이다가 상황에서 아예 굳어져 버린 관습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언중들에 의해 선택되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선행발화에 대해 호응을 하지 않는 사회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ㄴ₂)처럼 호응을 하게 되면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색한 발화가 되고 만다. 그래서 전달목적 발화의 후행발화로는 관습적인 표현들이 많이 쓰이게 된다.

이처럼 전달목적 발화의 후행발화는 선행화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후행화자의 관계유지의 의도와 체면유지 의도의 절충적인 태도가 발화에 반영되어 발화의 성격이 달라지고,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표현이 잉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응표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전달목적의 발화가 개인에 관한 내용의 발화라는 점에서 사교적인 상황에서 굳어진 관습적인 반응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유형 설정의 기준

대화상황에서 후행화자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의 반응과는 달리,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반응은 그 형태가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전달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선택의 폭이 요구에 대한 것보다 훨씬 넓어서 발화에 반영되는 후행화자의 의도도 여러 가지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선행발화가 후행화자의 마음을 움직인 정도에 따라 후행화자의 의도는 달리 개입이 되는데, 이러한 후행화자의 의도는 내용에 관한 의도와 대화 상대인 선행화자와의 관계에 관한 의도로 구분해 살필 수가 있다.²⁶⁾

따라서 여기서는 후행화자의 내용에 관한 의도로서 선행발화에 대한 만족의 여부와 수용의 여부를 살펴볼 수가 있다.

먼저, 후행화자가 선행발화에 대해 만족하였는가에 따라서 후행화자의 의도가 다르게 개입되는 점을 살펴 보겠다.

(9) ㄱ. 내일 친구들이랑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예요.

ㄴ₁. 오, 그래.

ㄴ₂. 도서관에 친구들이랑 가서 공부가 되겠니?

26) '화자의 의도'를 '내용에 관한 의도'와 '청자와의 관계에 관한 의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은 김미령(2003:91-97)에서 시도하여 김미령(2005)이후 화행분석에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김미령(2008)에서는 반응발화의 분석을 위해 후행화자의 의도를 '대화협력에 관한 의도'와 '대화방향에 관한 의도'로 나누고, 대화방향에 관한 의도에서 '내용에 관한 의도'와 '선행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도'를 살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달목적발화의 반응발화로서도 유형화 될 수 있는 것으로, 대화의 성립에 관계하는 화자의 의도인 대화협력에 관한 의도에서의 '무응답화행'과 '묵살화행'에 대해서는 김미령(2008)의 것으로 대신하여 다시 거론하지 않고, 대화방향에 관한 의도에서 '내용에 관한 의도'와 '선행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도'만을 적용시키고자 한다. 관계의 의도에서는 특히 앞서 살폈던 체면유지 의도와 질충된 태도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다.

(9)에서 전달 목적의 선행발화 (9₁)에 대하여 (9₁)에서는 후행화자가 만족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9₂)는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후행화자의 선행발화에 대한 만족의 여부에 따라 발화에 반영하게 되는 후행화자의 의도는 영향을 받게 되어 반응의 성격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행발화 내용에 대한 후행화자의 만족 여부는 후행발화의 유형을 결정짓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후행화자가 선행발화 내용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후행화자의 의도가 다르게 개입되는 점을 살펴 보겠다. 대개 선행발화에 대해서 만족할 때에는 수용의 태도를 취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비수용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겨난다.

(10) ㄱ.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ㄴ₁. 아닙니다.

ㄴ₂. 됐습니다.

(10)에서 (10₁)과 같은 전달목적의 선행발화에 대하여 (10₁)과 같이 반응될 수 있다. 이 같은 반응발화는 대화의 방향을 화합적으로 이끈다는 점에서는 같은 성격이 있으나, (10₁)은 선행발화에 대하여 만족하지만 비수용의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 (10₂)는 그다지 만족하지는 않지만 수용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이들 발화에는 선행화자의 체면을 배려하는 의도가 개입되어 만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후행화자의 의도가 수용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발화의 성격이 달리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후행화자가 선행발화 내용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후행발화의 성격을 결정짓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선행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후행화자의 의도에 따라 후행 발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 보겠는데, 여기서는 친교의 의도와 표현에의 적극성 여부, 그리고 그러한 의도에서 특별히 개입되는 표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먼저,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발화에 친교의 의도가 들어 있는가에 따라 후행발화의 성격이 달라짐을 알아 보겠다.

(11) ㄱ. 오늘 내가 한 톱 벌게.

ㄴ₁. 좋았어.

ㄴ₂. 알았어.

(11)에서 (11ㄱ)의 발화에 대해 (11ㄴ)에서는 모두 수용의 태도로 반응하는데, (11ㄴ₁)은 자신의 반가운 감정을 담아 친교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11ㄴ₂)는 특별한 친교의 의도 없이 단순히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후행발화에 친교의 의도가 들어 있는가에 따라서 같은 수용의 태도라고 하더라도 확연히 다른 느낌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후행화자의 친교의 의도는 발화의 성격을 다르게 하므로 이를 후행 발화의 성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표현에 적극적일 것인가 하는 후행화자의 의도는 후행발화의 성격을 달리할 수가 있다.

(12) ㄱ. 엄마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ㄴ₁. 뭣이 어째?

ㄴ₂. 아니야.

(12ㄱ)의 반응으로 (12ㄴ)은 모두 선행발화에 만족하지 못하여 비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12ㄴ₁)은 선행화자에 대해 친교의 의도 없

이 비수용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반해, (12₂)는 친교의 의도 없이 비수용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소극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발화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

이처럼 후행발화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는 발화의 성격에 영향을 미쳐 발화의 성격을 다르게 하므로, 표현에 적극적일 것인가에 대한 후행화자의 의도는 후행발화의 성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현에 적극적이고자 할 경우에 선행화자와의 관계에 따른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어 발화의 성격이 달라지는 점을 살펴 보겠다.

(13) ㄱ. 오늘 웬지 멋진데.

ㄴ₁. 고마워.

ㄴ₂. 그렇지?

(14) ㄱ. 다음에는 좋은 가방 사줄게.

ㄴ. 정말 사 줄 거지?

(15) ㄱ.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ㄴ₁. 왜, 내가 잘 했지.

ㄴ₂. 뭣이 어째?

(13)-(15)에서 (13₁-15₁)은 모두 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더해진 적극적인 표현의 반응들이다. 우선 (13)에서는 (13₁)이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13₁)은 선행발화에서의 자신에 대한 친교적인 평가에 대하여 후행화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표현이 후행화자 중심으로 되고 있고, (13₂)는 자신의 의견을 따로 개입시키지 않고 선행발화에 대해서 동조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이 선행화자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3₁)의 반응들은 표현의 중심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른

후행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개입된 적극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14)에서는, (14₁)이 역시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는 후행화자가 특별히 친교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알았어’나 ‘그래’ 따위의 단순한 수용의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처럼 선행발화에 대한 다짐이나 확인을 하려고 하는 후행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개입이 되면 (14₂)과 같이 비확정인 태도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발화가 된다.

(15)에서는 또한 (15₁)이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15₁)은 선행화자에 대한 비친교적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후행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어 빈정거리는 태도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15₂)는 선행화자에 대한 비친교적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후행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지만 빈정거리는 태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드러내려는 태도로써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표현을 위하여 후행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개입될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가 발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친교 표현에 적극적이 고자 하는 특별의도가 개입될 경우에는 어떤 화자 중심으로 표현할 것인가 의 여부, 특별한 친교 의도 없이 적극적이하고자 하는 특별의도가 개입될 경우에는 확정적 표현의 여부, 그리고 비친교 표현에 적극적이하고자 할 경우에는 빈정거림의 여부로 각기 다른 의도를 개입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의 도에 따라서 발화의 성격이 달라짐을 살필 수가 있다.

따라서 표현에 적극적이하고자 하는 후행화자의 특별 의도가 개입될 경우에는 ‘화자중심’의 문제, ‘확정’의 태도, ‘빈정거림’의 여부 사항은 후행발화 의 성격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후행발화의 성격을 달리 만드는 데 관여하는 후행화자의 의도는 먼저, 내용에 관한 의도로서는 선행발화 내용에 대한 만족의 여부와 선행발화 내용에 대한 받아들임의 태도 가 관여적이 되고, 이와 아울러 선행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도로서는

친교 의도의 유무와 표현에서의 적극성 유무, 그리고 특별한 의도로 개입 되는 화자중심의 문제나 확정의 태도, 빈정거림의 여부에서의 후행화자의 의도가 관여적이 되어 이에 따라 후행발화의 성격이 다르게 실현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전달목적 발화의 후행발화 화행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 정할 수 있다.

3) 후행발화 화행의 하위 유형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에 대하여 위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발화의 성격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후행발화의 화행을 설정해 볼 수 있다.

(1) 감사 화행

선행된 전달목적 발화에 대하여 만족을 하거나 혹은 만족과는 상관없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반응하는 발화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있어 특별한 의도로 후행화자 중심으로 친교 의도를 표현하는 발화의 화행을 말한다.

(16) ㄱ. 내일 내가 너 대신 해 줄게.

ㄴ. 고마워.

(17) ㄱ.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ㄴ. 감사합니다.

(16)-(17)에서 (16-17ㄱ)과 같이 선행발화가 심리적, 물질적으로 후행화자에게 이익이나 혜택을 주는 발화일 경우에 (16-17ㄴ)과 같이 후행화자가 만족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데 있어서, 친교의 의도

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행화자에 대한 자신의 느낌인 고마움의 감정을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발화의 표현은 후행화자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격의 발화는 감사 화행이 된다.

(2) 동조 화행

선행된 전달목적 발화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혹은 만족과는 상관이 없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반응하는 발화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 특별한 의도로 대화의 상대방인 선행화자 중심으로 친교의 의도를 표현하게 되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 이때는 선행발화에 공감을 나타내게 되어 선행화자와의 친화력이 높게 형성이 되는 면이 있다.

(18) ㄱ.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는 것 같아.

ㄴ. 내 말이.

(19) ㄱ. 경기가 좀 살아나야 장사가 될 텐데.

ㄴ. 그러니까.

(18)-(19)에서 (18-19ㄱ)과 같이 선행화자의 생각에 관한 발화에 대하여 (18-19ㄴ)처럼 후행화자가 만족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데 있어, 친교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보다는 선행화자의 발화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이때 발화의 표현은 선행화자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화는 동조 화행이 된다.

(3) 회피1 화행

선행된 전달목적 발화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혹은 만족과는 상관이 없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반응하는 발화로, 친교의 의도를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후행화자가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내용을 선행화자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ㄱ.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ㄴ. 그저 그래.

(21) ㄱ. 별 일 없으세요?

ㄴ. 아, 예.

(20)-(21)에서 (20-21 ㄱ)의 친교적인 발화에 대해 (20-21 ㄴ)과 같이 만족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친교의 의도가 있지만 자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친교적인 상황이라는 하지만 후행화자가 선행화자로부터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소극적 체면²⁷⁾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여서 그리 친밀하지 않거나 친밀하다고 하더라도 격식성이 필요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화행으로, 이런 성격의 발화는 회피¹ 화행이 된다.

(4) 확인 화행

선행된 전달목적 발화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혹은 만족과는 상관이 없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반응하는 발화로, 이 때 친교의 의도는 관여적이지 않으면서 선행발화에 대해 다짐이나 확인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의도

27) 브라운과 레빈슨(1978/1987)에서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다섯 가지 '언어적 예의를 위한 전략'을 제안했는데, 여기서 '소극적 예의'에 대해 '자신의 의도와 행동의 자유로움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소극적 체면을 향한 행위'라고 하면서, 이의 전략으로는 간접적으로 발화하기 등을 말하고 있다. (송경숙 2003:139-140, 149 재인용)

를 개입하여 비확정적인 태도로써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

(22) 가. 오늘은 일찍 보내줄게.

나. 일단 말씀하셨지요?

(23) 가. 다음부터 늦지 않을게.

나. 믿어도 돼?

(22)-(23)에서 (22-23가)과 같이 선행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발화에 대해 (22-23나)처럼 후행화자는 선행화자로부터 이의 내용을 한 번 더 다짐을 하거나 굳히기 위한 특별한 의도를 담아 비확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선행화자가 미답지 못하거나 아니면 선행발화의 내용을 굳혀서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런 성격의 발화는 확인 화행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확인 화행은 비확정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반응요구 발화에서의 반응인 유보 화행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유보 화행은 선행화자의 요구에 대한 후행화자가 자신의 입장이나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내용의 구체화를 통해 판단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비확정적인 태도로 발화하는 화행인데 반해, 확인 화행은 선행발화에서의 화자의 의도를 다지거나 굳히려는 강력한 의도를 비확정적인 태도로 발화하게 되는 화행이라는 점에서 둘은 구분이 된다.

(5) 수긍 화행

선행된 전달목적 발화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혹은 만족과는 상관이 없이 내용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태도로 반응하는 발화로, 이때 친교의 의도는 관여적이지 않고 후행화자가 확정적인 태도로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단순

한 수용의 화행을 말한다.

- (24) 가. 오늘 좀 늦을 거예요.
나. 알았어.

- (25) 가. 나중에 잠시 들리게.
나. 그래.

(24)-(25)에서 (24-25가)의 선행발화에 대해 후행화자는 만족하거나 혹은 만족과는 상관이 없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반응하는데, 이 때 친교 의도는 비관여적이면서 확정적인 태도로 단순히 반응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화행은 친교적 표현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나 격식성이 요구되지 않는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성격의 발화는 수긍 화행이 된다.

(6) 의례 화행

선행된 전달목적 발화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혹은 만족과는 상관이 없이 친교의 의도를 오히려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나타내어 보이는 소극적인 표현의 화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행발화에 만족하거나 특별한 불만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게 되지만, 여기서처럼 선행발화에 만족을 하거나 특별한 불만이 없으면서도 특이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된다.

- (26) 가. 어머니, 다음에는 더 좋은 것 사드릴게요.
나. 그럴 것 없다.

- (27) 가. 오늘 정말 잘 하셨어요.
나. 아니에요.

(26)-(27)에서 (26-27ㄱ)의 친교적인 선행발화들에 대한 반응으로 (26-27ㄴ)에서는 선행화자의 혜택이나 우호적인 평가에 대하여 친교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발화들은 선행화자와의 관계를 위하여, 자신에 대한 선행화자의 혜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자신이 우호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행화자의 적극적 체면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²⁸⁾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의 발화는 의례 화행이 된다.

(7) 감수 화행

선행된 전달목적 발화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가지면서도 친교의 의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는 소극적인 표현의 화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행발화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가진 경우에는 선행발화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는 만족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는 특이한 경우가 된다.

(28) ㄱ.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ㄴ. 됐다.²⁹⁾

28) 앞의 경우는 사양에 해당되고, 뒤의 경우는 겸손에 해당되는데, 겸손의 경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상황에서 오히려 어색할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까”라든지 “한 번은 누구라도 하지요” 등등의 높은 평가에 대한 받아들임을 최소로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29) 김미령(2003: 56,70,79)에서는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지는 ‘됐다’에 대하여, 불만의 경우에는 ‘중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물질 제공의 상황에서는 ‘사양’의 의미를 함축하며, 또한 사과와 상황에서는 ‘괜찮다’의 의미로도 쓰인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됐다’는 ‘괜찮다’의 경우처럼 친교적 의도에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수용’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된다.

- (29) ㄱ. 이번 시험은 잘 안될 것 같아요.
 ㄴ. 어쨌든 알아서 해 봐.

(28)-(29)에서는 (28-29ㄱ)의 선행발화에 대해 (28-29ㄴ)처럼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친교의 의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후행화자가 선행발화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으로 마음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선행화자와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점이 있으며, 다소 불만족스러우면서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앞서 만족스러우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비수용의 태도를 보이는 의례 화행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의 발화는 감수 화행이 된다.

(8) 회피2 화행

선행된 전달목적 발화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가지고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반응하는 발화인데, 이때 선행화자와의 관계에서 친교를 위해 후행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선행화자와의 불일치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선행화자와의 정면 대립을 피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들어있다.

- (30) ㄱ. 난 철수가 이해가 안 돼.
 ㄴ. 난 잘 모르겠어.

- (31) ㄱ.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ㄴ. 글썄.³⁰⁾

30) 이해영(1994:143)에서는 선행담화참여자의 진술이나 질문, 제안, 명령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못하고 응대를 회피할 때도 사용된다고 하면서 이럴 경우 발화

(30)-(31)에서 (30-31ㄱ)의 선행발화에 대해 (30-31ㄴ)은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선행화자와의 친교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 선행발화에 대하여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이를 회피함으로써 선행화자와의 대립상황을 피하려는 후행화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의 발화는 회피2 화행이 된다.

그런데 회피2 화행은 친교를 위해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점에 있어서는 앞서 다루었던 회피1 화행과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회피1 화행은 선행발화에 대해 만족하거나 적어도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소극적 체면을 세우기 위한 회피인데 반해, 회피2 화행은 불만족스런 상황에서 선행화자와 불일치되는 자신의 생각을 정면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선행화자와의 대립을 피하려고 하는 회피라는 점에서 둘은 구분이 된다.

(9) 비꼼 화행

선행된 전달목적 발화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가지고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반응하는 발화인데, 이때 비친교적인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후행화자는 특별한 의도로 선행화자에게 빈정거리는 표현을 하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

- (32) ㄱ. 저번에 대들어서 잘못 했어요.
 ㄴ. 잘못 하기는 네가 잘 했지.

- (33) ㄱ. 이번 시험을 망쳤어요.
 ㄴ. 잘 됐네.

자는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였다.

(32)-(33)에서 (32-33ㄴ)에서는 선행발화에 불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비친교적인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행화자에게 빈정거리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꼼 화행은 선행발화에 대한 강한 불만을 선행화자에게 거슬리도록 은근히 놀리는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선행화자는 마음이 불편해 지고 곤란함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의 발화는 비꼼 발화가 된다.

(10) 항의 화행

선행된 전달목적 발화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반응하는 발화인데, 이때 비친교적인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개입되지만, 불만을 빈정거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 즉, 이러한 항의 화행은 선행발화에 대한 불만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선행화자에게 바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꼼 화행과 구분이 된다.

(34) ㄱ. 이걸 당신 실수야.

ㄴ. 당신이 뭔데 그래?

(35) ㄱ. 이래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되지.

ㄴ. 내가 뭘 어쨌다구요?

(34)-(35)에서 (34-35ㄱ)의 선행발화에 대해 (34-35ㄴ)은 불만을 가지고 비친교적인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선행발화에 대한 강한 불만을 은근한 빈정거림으로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어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선행화자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행화자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이와 같은 발화는 항의 화행이 된다.

(11) 반대 화행

선행된 전달목적 발화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가지고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반응하는 발화인데, 이때 선행발화에 대한 불만을 비친교적인 의도로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의 화행을 말한다.

(36) ㄱ. 요즘 애들은 어른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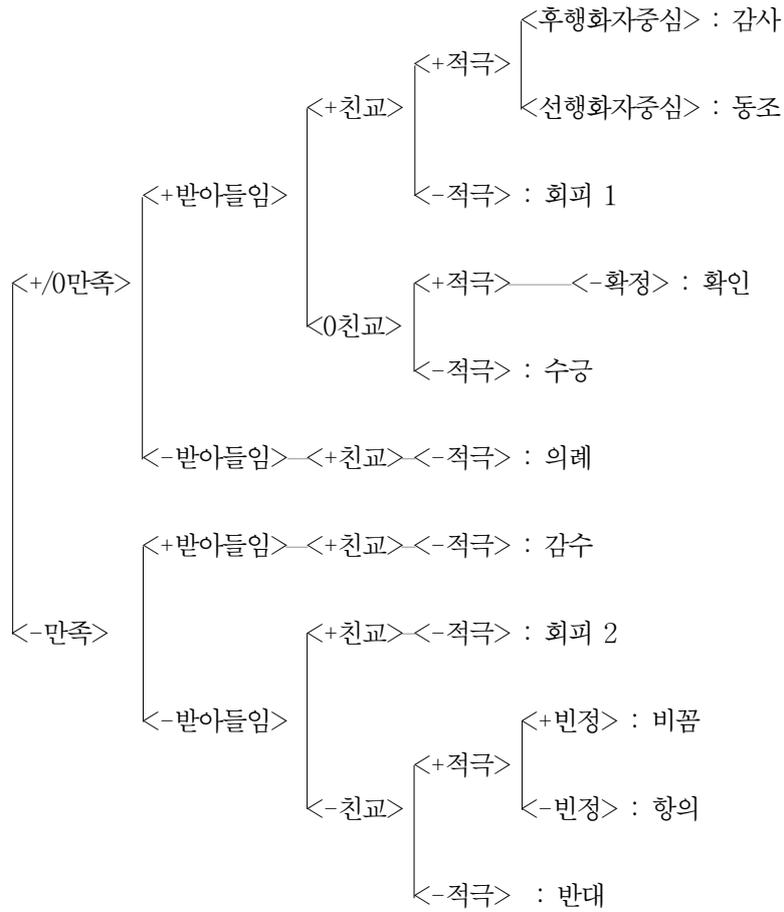
ㄴ. 뭐, 애들이 그렇지.

(37) ㄱ. 김 과장이 사업을 하면 잘 할 거야.

ㄴ. 그건 아니지.

(36)-(37)에서 (36-37ㄱ)의 발화에 대해 (36-37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불만인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때 비친교적인 의도를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선행발화에 대한 불만을 선행화자에게 바로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화행이다. 이런 화행은 특별히 친교적인 표현이 필요 없는 친밀한 관계나 격식이 필요 없는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성격의 발화는 반대 화행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전달목적의 성격을 가지는 발화에 대해 반응으로서 실현 되는 후행발화들의 특징을 살펴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화행을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전달목적 발화의 선행발화로서의 공통 특징은 발화들이 화자의 내용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현이 된다는 것과 발화 내용이 청자에게 관여적이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특성이 있고, 발화를 통해 청자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면이 있으며, 청자에 대한 관계유지의 의도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유도한다는 특성이 있다.

선행발화의 개별 특징으로는 청자에 대한 친교의 목적이나 의무나 부담, 평가의 유무를 살필 수 있는데, 이들에 의해 발화의 개별성이 결정되어 반응으로서의 후행발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달목적 발화의 후행발화는 선행화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후행화자의 관계유지와 체면유지 의도의 절충적인 태도가 발화에 반영되어 발화의 성격이 결정되고, 반응표현이 잉여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반응표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전달목적의 발화가 개인적인 내용의 발화라는 점에서 사교적인 상황에서 굳어진 관습적인 반응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후행발화의 성격을 달리 만드는 데 관여하는 후행화자의 의도는 먼저, 내용에 관한 의도로서는 선행발화 내용에 대한 만족의 여부와 선행발화 내용에 대한 받아들임의 태도가 관여적이 되고, 이와 아울러 선행화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도로서는 친교 의도의 유무와 표현에서의 적극성 유무, 그리고 특별한 의도로 개입되는 화자중심의 문제나 확정의 태도, 빈정거림의 여부 사항이 관여적이 되어 이에 따라 후행발화의 성격이 다르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후행발화의 화행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후행발화의 화행을 유형화 하면, 감사 화행, 동조 화행, 회피1 화행, 확인 화행, 수긍 화행, 의례 화행, 감수 화행, 화피2 화행, 비꼼 화행, 항의 화행, 반대 화행이 설정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이정민, 배영남 공저, 『언어학사전』, 박영사, 1987.

2. 논문

김순자, 「진술에 대한 응대-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8집, 한민족문화학회, 2001. pp.241-266.

김순자, 장경희, 「일상 대화에서 수행된 맞장구 실태 조사 -연령, 성별 요인을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집, 국제어문학회, 2008. pp.133-151.

김미령, 「우리말 대응 발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3.

김미령, 「전달 목적 화행의 유형 설정에 대한 시도」, 『우리말연구』 제17집, 우리말학회, 2005. pp.97-121.

김미령, 「반응요구 발화에 대한 후행발화의 화행」, 『한민족어문학』 5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 pp.89-120.

김인규, 「한국어 사과 화행의 중간언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pp.22-30.

김형민, 「한국 대학생의 칭찬 화행 수행 및 응대 상황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12집, 한국어의미학회, 2003. pp.255-290.

노은희, 「협조적인 대화의 맞장구」, 『동서문화연구』 9집, 홍익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2001. pp.15-26.

이준희, 「언표내적 화행의 유형과 간접 화행」, 『우리어문연구』 24집, 우리어문학회, 2005. pp.69-99.

이혜영, 「담화표지 ‘글썸’의 담화기능과 사용의미」,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여대 한국어문학회연구소, 1994. pp.129-150.

장경희, 「진술에 대한 긍정과 부정」, 『한국어 의미학』 5집, 한국어의미학회, 1999. pp.311-332.

장경희, 「국어의 대화 구조」, 『한양어문』 제1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8. pp.211-236.

3. 단행본

- 구현정, 『대화의 기법』, 한국문화사, 1997. p.25.
- 이성범 옮김, 『화용론』, 한신문화사, 1996. pp.136-137, 170 (Jacob L Mey 1993 : Pragmatics-An Introduction)
- 송경숙, 『답화 화용론』, 한국문화사, 2003. pp.138-140.
- 임지룡,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2007, p.76
- 장석진 편저, 『오스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p.3-189.
- Searle John R. and D. Vanderveken, 『Foundations of Illocutionary Log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Speech Act Patterns of Response Utterances
for preceding utterances of presentation purpose

Kim, Mi-R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peech act patterns of response utterances for preceding utterances of presentation purpose. The criteria are speaker's intention of response utterances for the contents and relationship. They are subclassified by [\pm feature] of the satisfaction of content, manners of reception, manners of friendship and positiveness of expression. Following these criteria, Speech act patterns are divided eleven. They are 1. gratitude speech act 2. conformity speech act 3. avoidance1 speech act 4. confirmation speech act 5. assent speech act 6. courtesy speech act 7. submission speech act 8. avoidance2 speech act 9. cynic speech act 10. protest speech act 11. object speech act

Key-words : speaker's intention, satisfaction of content, manners of reception, manners of friendship, positiveness of expression., gratitude, conformity, avoidance1, confirmation, assent, courtesy, submission, avoidance2, cynic. protest, object

김미령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강사

주소 : (621-772)경남 김해시 삼방동 한일아파트 3동 1203호

전화번호 : (055) 328-0373

전자우편 : mmiryung@hanmail.net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0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12월 15일 게재 확정됨.